

산업보건 주요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일 국민과 함께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故 박선옥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거쳐,
판단 선례될 듯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18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선옥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3월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하여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금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 제천에서도 가능해요

안전보건공단, 실습과 체험 중심의
제천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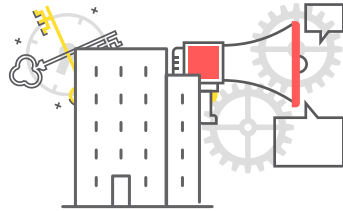
노동자와 국민들이 안전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실습과 체험 중심의 지역 거점형 안전교육장이 제천에 들어섰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21일 오후 3시 충북 제천에서 제천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제천 안전체험교육장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장성을 강화한 산재예방에 특화된 체험시설이다. 2018년 3월 착공을 시작한 교육장은 총 사업비 80여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1,97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교육 콘텐츠는 7개 분야, 33종이며 건설현장 추락재해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유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VR) 체험관을 마련해 교육생이 현장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돕는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교육생을 인솔해 체험을 돕고 재해예방대책을 강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교육시간은 회당 2시간 내외다. 특히 직업체험과정을 도입해 예비산업인력인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또한 이번 교육장은 공단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장과 달리 실내에 조성되어 날씨에 상관없이 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체험교육은 무료이며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베트남 석면 금지정책 수립 돕는다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건설부 대표단에 석면 안전관리 기술 전수

안전보건공단은 3월 14일 공단을 방문한 베트남 대표단에 석면 안전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석면사용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최근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건설부는 한국과 일본의 석면 안전관리 정책과 기술을 벤치마킹해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고자 WHO 베트남 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이번 대표단을 파견했다.

공단은 베트남 대표단에, 석면섬유 포집 및 분석 방법, 석면 함유물질 해체·제거작업 실습 교육 등 석면 안전관리 기술을 전수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 이처문 교육문화이사는“공단의 석면안전관리 기술이 베트남 석면금지 법안 마련에 도움이 되어 실질적인 질병 감소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개발도상국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 9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기술자문과 초청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 선따이시에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베트남 노동보호사회부가 공동으로 총 10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업안전보건훈련센터를 개관하기도 했다. 📌